개혁I, 로컬교회에서 글로컬교회로

(마16:13-20)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017년 첫 번째 오늘의 번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 동안에는 '이제는 부흥이 아니라 개혁이다' 라는 주제의 신년 온라인 사경회를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개혁 I, 로컬 교회에서 글로컬 교회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개혁 I, 로컬 교회에서 글로컬 교회로'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 전문점 숫자가, 전 세계에 있는 34,000개의 맥도널드 매장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한국에서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무엇일까요?
2013년 통계에서 4위는 편의점으로 22,851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3위는 중국집으로 25,003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2위는 치킨 전문점으로 37,12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는 과연 무슨 업종일까요? 1위는 교회로서 55,427개가 있습니다.
교회를 업종별 분류에 포함시킨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하여간 그 숫자가 55,427개나 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는 1960년대에는 5,011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2002년에는 60,785개로 늘었다가 해마다 줄어서 2009년이 되면서 58,600개로 줄어듭니다. 해마다 1,000곳 정도의 교회가 개척되고 1,3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개신교인의 숫자는 1995년에 876만 명이었다가 현재는 600만 명으로까지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교인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2013년 한 해 동안에만 경매에 붙여진 교회의 건수가 96건이었고, 지금 현재 몇 백건의 예배당이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한 이자를 갚는 돈만 한 해에 5~6천억 이상이 나가고 원금 전체는 10조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100년이 걸려서 천만 성도에 이르렀던 교회는 현재 600만으로 감소했고, 현재 추세로는 2050

년에는 300~400만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결국은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과 당 회원들과 제직들이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매진하며 노력하고 있으므로 전체 교인이 늘어야 정상인데, 전국의 목사님들이 손가락에 꼽을만한 초대형교회만을 바라보며 언젠가 그렇게 될 날이 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에 교인들의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역에서 생겨났던 작은 교회들은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교회들도 개척한지 10년이 되었음에도 교인이 30명도 못 되는 교회가 넘치고 있습니다.
교인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그 많은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목사님들은 휴가철이 되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설교를 배우고 교회 부흥과 교인 양육을 배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초대형 교회를 바라보느라 주변의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못 보고 오히려 교회가 활성화 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는데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초대형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저변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머지않아 주저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초대형 교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가는 과정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영락교회에 있었습니다만 박조준 목사님 때에 교인 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6만 명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석 교인이 만 명이 안 된다는 말을 그 교회의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70% 가까이가 노인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교회를 살려야 할까요?
지금 문제는 부흥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부흥을 좇아왔습니다. 마치 부자 되겠다고 평생을 돈 벌고 살았는데 집 한 칸 없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과도 같습니다. 부흥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는데 교회들이 이러한 초주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대형교회만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아직도 활성화 중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이고, 밑동이 사라진 구멍 뚫린 저변의 상황 때문에 머지않아 다 폭삭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이 훌륭하고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줄로 착각합니다만, 지역 교회를 싫어해서 쏠리고 있을 뿐입니다. 참 맥 빠지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공교회 의식을 살려내서 지역교회를 살려야만 합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지금의 천주교를 뜻하기 이전에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이 공교회 의식을 살려내야만 지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공교회의 의식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때에 '보편적 교회의 교인'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개교회 목회자로서의 의

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옆 교회가 죽고 기어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 현장은 내 이름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지금 공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기존의 관습이나 제도를 까부시고 엎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공교회 의식을 가지고 개교회의 목회의식에서 공교회 목회의식으로, 개교회 교인의식에서 공교회의 교인의식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공교회 목회의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교회 의식을 가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모든 변화를 이 시간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글로벌(Global:국제)과 로컬(Local:지역)이 합성된 글로컬(Glocal:현지화)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영업 전략으로 삼은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맥도널드입니다. 맥도널드는 세계적인 공룡기업으로서 빅맥, 치즈버거, 감자튀김이 대표메뉴입니다. 이 메뉴들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오면서 맥도널드는 전략을 바꿉니다.
본사에서 결정한 통일된 유전자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징을 담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에 진입하기 위해 이 전략을 실행하여 대대적인 성공을 거둠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컬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맥도널드의 34,000개 지점을 엮어주는 통일된 유전자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 지역마다의 특색을 담아낸 글로컬 메뉴를 출시함으로서, 2012년 한 해에만 무려 30조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개교회의 상황은 개교회들의 고군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고군분투를 하는 중에 부흥의 꿈을 꾸며 사그라져가고 있습니다. 전체의 교인 수가 천만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600만을 보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본사와의 연결이 차단된 맥도날드 지점을 상상해보세요. 그러한 지점이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성업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손님들은 곧 그 가게가 이제 맥도널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 지점은 문을 닫게 되는데 지금 교회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공교회 의식이 없는 것은 본사의 지원이 끊어진 맥도날드 지점이 되어서 홀로 고군분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맥도널드의 특징은 세워만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도 맥도널드가 있고 강북에도 맥도널드가 있는데, 강남 맥도널드가 특별히 맛이 있어서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까지 가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특정 대형교회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인 것입니다. 도봉구에 산다면 그 지역에 있는 맥도널드에 가듯이, 그 지역의 교회를 가더라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공교회 의식이 살아난다면 우리나라 교인들이 대형 교회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합니다. 공교회 의식이 큰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나의 마음을 자제하고 억압해서 동네 교회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 의식이 살아나게 되면 대형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이 감리교회이든 장로교회이든 침례교회이든 성결교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교회 의식이 살아나고 그곳이 교회이기만 하다면 어떠한 부족함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사님들도 공교회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에 어떤 교회에 있든지 맥도널드의 지배인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교회가 유지된다면 스타 목사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스타 목사가 등장한 것은 개교회 중심이 되어 공교회 의식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개교회의 목회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공교회 의식이 활성화되고 공교회적 철학을 갖게 되면 교인들은 목사가 설교를 잘 하든 못 하든 상관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100%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공교회 의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주'란 구세주(Lord)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당신(You)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을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치라 /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하십니다. 이는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오순절의 성령강림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교회는 부흥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양들이 있고, 그 양들은 다만 발견되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어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흥이 아닌 이미 예수님께서 택하신 교인들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 10억일지 30억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교회는 이미 교인된 자들에 의해서 묻혀 있는 예수님의 양들을 찾아내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공교회의 의식을 갖게 하는 뿌리입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 심장을 꺼내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 심장을 꺼내드리는 이유는 '구주'라는 말이 뜻하는바 전혀 만족하고 기쁠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의 현실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영원한 만족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 육체로 만날 수 있는 것들에 마음 심장을 꺼내주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게 마음을 주면 육체가 죽을 때에 돈과의 관계가 끝납니다. 돈이 주는 만족과 기쁨이 끝나면서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리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고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이들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Ecclesia)"라는 말에서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밖으로 불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로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 상태의 우리를 불러내서, 지구 밖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로 끌고 올라가셔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관한 얘기는 베드로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중을 하십니다. 이 과정이 교회와 연관되어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심장을 꺼내서 예수님께 드리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었고 그 다음에 예고가 나오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면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미래에 나라를 독립시키고 한 자리씩 하겠다는 부푼 꿈도 다 잊어버리고 가족도 동료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면서 기쁨의 극치 속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이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얘기되면서 하늘나라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이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살지만 밖으로 나오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구 안에 있는 어떤 가치들로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밖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20억 명이라면 20억 명의 심장이 예수님 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모이면 에크, 클레오 합니다. 바깥으로 나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들에 묶여서 세상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상태에서 교회로 모이면 오직 하나만 하면 됩니다.
지금 세상 가치에 묶여서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해야 합니다. 설교는 이것 하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맥도널드가 강남지점이나 강북지점이나 어디를 가든지 빅맥의 맛이 똑같고 치즈버거의 맛이 똑같은 것과 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갈 것을 설교하고, 그래서 마음이 다시금 주님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교제하시는 그 교제에 주님 안에서 참여하고,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늘에 앉힌 바 된 것을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세상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가면 됩니다.
얼굴이 못생긴 목사님의 말씀도 상관없고 못 배운 목사님의 말씀도 상관없고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공교회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쭉 훑어보면 그 당시의 가톨릭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이 왜곡되어도 보통 왜곡된 게 아니기 때문이고, 이단도 그런 이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문제는 종교개혁팀 자체가 사분오열로 나뉘었습니다. 쯔빙글리파, 캘빈파, 마르틴 부처 같은 사람은 개혁의 강도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고, 또한 제세르파 같은 정치세력들이 개입되었습니다. 교리와 이해관계와 정치적 역학관계로 계속 나뉘어졌는데 이게 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분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과 아버지의 교제 안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 내 마음도 보고 주님이 아버지로 느끼시는 기쁨을 나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의견의 차이라든지 정치역학관계라든지 이해관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리 교인이 장로교인 될 필요 없고 장로 교인이 침례교인 될 필요도 없고 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바꾸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공교회 의식과 공교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을 보면 이 사람을 내 교회에 잘 붙어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성도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장갑으로 살 것만 염두에 두면 됩니다. 이 교회운동이 가장 교인이 적은 빈약한 교회의 목사님들로부터 출발이 돼야 합니다.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비즈니스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변으로부터 숫자적 의미에서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공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공교회 의식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시작하겠습니까? 교인이 적은 목사님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교인이라는 공교회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서 다른 교회로 갈지라도 맥도널드의 빅맥이나 치즈버거의 맛이 그대로인 것처럼 목사님께서 공교회 의식으로 목회를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함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설교할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라든지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목사들의 몫은 마음이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동선을 따라서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공교회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는 제사만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설교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십자가의 사건을 설교를 통해서 오늘의 신앙의 사건으로 재현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면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굳이 다른 교회로 갈 필요도 없고 또 처음 보는 사람도 마음을 주님 안으로 보내고 있음이 성령으로 확인되면 창세전부터 형제자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권사님과 집사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혈육을 나눈 형제자매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따라가는 공교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실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의 살길이 어디 있습니까?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동선을 따라서 하늘에 두는 자들의 모임이 공교회임을 알고 공교회 목회를 하고 공교회 교인 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 의식이 퍼져나가고 공교회 목회가 퍼져나가면서 맥도널드와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를 가도 똑같은 설교말씀입니다. 여기에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 사건이 지금의 신앙의 사건이 되면서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과 교인이 공교회 의식을 살려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멀리 있지 않은 살 길을 이제 손에 쥐고 그 길을 걸으면서 온 지구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어느 교회를 가나 생명력이 동일하게 넘치는 교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